제주 코스메틱 밸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직무대리 김 기 옥

화장품산업은 이미지 추구와 브랜드 가치에 따라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화장품산업이 발전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장품은 스킨, 로션, 화장수 등 물 비중이 비교적 높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품목으로 적합하므로 제주의 물과 천연식물 및 약용식물을 가미하여 고기능성 제품 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선도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JEJU DEVELOPMENT FORUM

1. 들어가며

향장품은 천연향료, 합성향료, 그리고 자연에서 얻어진 추출물, 또는 천연화합물을 첨가하여 '미모의 아름다움', 신체 내외부의 스타일을 가꾸는 '느낌과 체험의 아름다움'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향장품산업 범위는 화장품산업, 향기산업(Flavor, Perfumes) 그리고 화장품과 향료를 이용한 스파(Spa) 및 테라피(Therapy)산업까지로 정의한다.

향장품산업 특성은 선진형 미래산업, 종합과학기술 산업, 감성지향 산업, 그리고 U-Health 시대에 고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화장품산업은 경제 발전에 비례하는 산업으로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중진국은 GDP의 0.5~1%, 후진국은 GDP의 0.5% 미만) 수준을 차지함. 국내의 경우는 GDP 대비 0.46%를 차지하여 2008년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하여 작은 시장 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해외 향장품산업은 지난 5년간 4%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시장은 2,02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향장품은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화장품(노화방지, 주름개선, 피부트러블 방지 등), 맞춤형화장품(개인, 연령, 피부특성, 아토피, 등), 천연기능성원료 중심 소재활용 제품(천연원료, 신원료, 해조류 원료, 발효원료 등), 신기술 공정 및 융합제품(초임계, cryoextract, nanotechnology 등), SIT제품(special interest tourism : 관광투어 및 체험제품),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공정 및 기기가 적용된 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화장품산업 문제점으로는 ① 브랜드력 부족(국내시장에서 조차 30대 브랜드에 랭크된 국내 브랜드는 설화수(1위)를 포함하여 4개 브랜드에 불과하여 조기 브랜드 육성이 시급), ② 원료 국산화 시급(국내 화장품 원료는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원료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관련 정책 및 육성 대책 마련 시급), ③ 기술투자 미흡(유럽, 북미, 일본 등의 비교해 R&D 투자 미미와 원천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제품 품질 저하), ④ 중국제품 급부상으로 동남아 중저가 화장품의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확대가 어렵다.

그 동안 국내 화장품산업 주도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등 기업주도형으로 이끌어 왔으며 세계 100대 기업에 5개 기업이 포함될 만큼 국내 화장품산업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산업의 세계1위인 로레알 같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야, 기술분야, 인력양성분야, 기업지원 분야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향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육성하기 위한 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동안 개별 기업에 의해 발전되어 왔던 화장품산업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산업단지화하여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코스메틱 밸리 조성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는 친환경 화장품산업의 적지

1) 건강 뷰티산업 육성 등 준비 만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건강·뷰티생물산업(향장품, 식품, 해양바이오 등)을 육성하여 왔다.

제주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주테크노파크는 건강·뷰티 생물산업의 기획육성,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지역 생물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지자체 화장품공장을 설립(2004년)을 운영하여

CGMP 인증(cosmetic GMP : 2005, 12월)을 받아 50여개사에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팩, 샴푸 등 300만여개를 생산지원 하였다. 특히 화장품원료 생산공장을 준공(189.06㎡, 2007년 6월), 운영 중이다. 2009년도부터는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수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09~10년 : 100만불 수출).

제주 향장품산업의 적정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기농 및 친환경 향장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82%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육성지역으로는 제주가 79%로서 2위인 강원도(8%)보다는 환경과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질의에서도 77%가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제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과 향장품산업과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95%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여 화장품산업 육성 시 관광산업 역시 활성화가 있을 것을 사료된다. 그리고 제주 향장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국내 향장품산업 육성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자원, 국제자유도시 연계 부분에서 경제자유특구인 인천, 한방산업 특성화 지구인 경북, 수도권 인접한 오산시보다 설문조사와 여건분석 등에서 제주는 절대 우위로 분석된다.

제주의 강점은 화장품산업 중심지로서 지리적, 환경적 조건으로 육상, 해양 식물의 다양성과 특이성,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향장품 뷰티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바로 이 같은 천연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원료들과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짐으로써 세계적인 원료 잠재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분포하는 자생 식물은 생물산업의 가장 기본인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제주의 자생식물은 육상식물 2,000여종과 해양식물 500여종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물의 약 1/2정도로 많은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생물자원 이용 산업에 대단히 유용한 조건이며, 제주도의 식물은 우리가 산업화 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판단된다. 제주 고유특산종은 60여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ICID)등재에는 200여종이 등재 되어있음. 제주자생식물의 특허현황을 크게 식품관련, 의약품관련, 화장품관련으로 분류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412종으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0년 11월 현재). 현행 「제주자치도 특별법」에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생명공학 및 화장품산업화 관련 육성법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생물산업 및 화장품산업육성법"등 생명공학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 논의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조항 신설은 현행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제7절 21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법' 의 전, 후에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1) 향장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조례 2) 향장품관련 부자재, 원료, 포장재 등 무관세, 3) 도외기업 클러스터내 입주시 취득세, 법인세, 관련 세금 감면 제도, 4) 클러스터내 토지매입시 30% 지원, 5) 해외기업 이전 시 이전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및 정착금 지원, 6) 클러스터내 기술지원, 디자인, 물류, 제형 등 관련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클러스터내 기업 지원, 7) 향장품 관련 기술인력

양성, 8) 클러스터내 입주기업 브랜드 개발, 홍보, 판로지원,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향장품산업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원료재배 및 경작지 특례 사항, 11) 친환경 및 유기농화장품 원료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주는 특히, 한방화장품 원료 공급의 메카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제주는 한방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인 국내재배 약재를 사용하는 전략과 연계하여 우수 한약재 생산의 거점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재배 약재를 사용한 한방화장품의 증가는 약재재배에 있어서 청청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게는 큰 기회로 판단된다. 최근 한방화장품에서 지역특화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약재 재배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쉽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으므로, GAP에 비견할 만한 KOLAS 제도 같은 제주도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방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인 국내재배 약재를 사용하여 제품의 신뢰감과 효능을 높인 기술 전략과 연계하여 우수 한약재 생산의 거점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재배 약재를 사용한 한방화장품의 증가는 약재재배에 있어서 청청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게는 큰 기회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에서 친환경 재배 및 대체보완의약품의 개발 필요하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보완의약의 최적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경쟁우위 요소이다.

2) 화장품산업 단지 조성 필요성

제주내 산업클러스터는 1개(첨단과학기술클러스터, JDC)에 불과하여 강원 19개, 전남 32개 등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바이오 산업클러스터를 갖고 있다.

제주 바이오기업은 251개 기업,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은 200개 이상으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물 산업체는 꾸준히 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특정 클러스터화가 부족하여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흩어진 기업의 공장 및 전 처리시설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헤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의 화장품산업인 경우 제주가 2003년부터 차별화 전략으로 꾸준히 육성하여 45개의 화장품 관련 업체가 창업 및 유치, 또는 업종변화로 특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산업 인프라 자원, 기술력을 집적화시키기 위한 거점클러스터가 없는 실정이다.

제주 생물자원(육상식물, 해양생물, 한방자원, 친환경 농작물, 미생물 등), 물(지하수, 용암해수)을 이용한 향료, 화장품 및 먹는 화장품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원료개발에서 완제품 개발, 그리고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개발, 신원료 개발, 브랜드 마케팅, 기타 기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펀드조성 등을 복합적 지원화로 지원하는 제주형 코스메틱밸리 조성이 시급하다.

신산업 집적화를 위한 집적 및 특화산업클러스터 확장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현 산업구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되다보니 제조업부분이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 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중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도의 편중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필요하다.

화장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용암해수센터, 생물산업진흥센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및 첨단과학기술클러스터 등 클러스터를 구축한 연구개발 중심클러스터로 개발 필요하다.

제주코스메틱밸리의 비전은 동북아 최고의 향장품 도시 건설로 정할 수 있다. 제주형 코스메틱밸리의 목표는 국내·외 향장품 기업유치이며, 핵심 상품은 화장품, 향료, 그리고 물 응용 상품이다.

향장품기술지원센터는 관련 디자인, 제형기술개발, 신원료 개발 지원, 기업애로기술 지원, 인센티브 개발 등 제주코스메틱밸리 만의 특성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향료원(cosmetic ingredient herb park)을 설립하여 글로벌 원료 진출 모색 및 신원료 강화한다.

건강·뷰티 생물산업 추진 사업 전략 및 제주지역의 융복합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향장품산업구조의 다각화, 전문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집적화를 도모한다. 향장품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제조업과 혼재되지 않고 독립적인 입지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생태지향적이고 감성지향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게 된다. 코스메틱밸리의 기능 및 역할은 기업유치 기반조성, 업종의 집적화,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지구 확충, 첨단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 개발 등이다.

3. 국외 코스메틱밸리 조성사례

1) 코스메틱밸리(프랑스)

코스메틱밸리는 2004년 프랑스 정부의 R&D 정책의 일환으로 PASS와 함께 공식적으로 2005년 7월에 선정되었다. 기업, 연구센터, 교육기관 등의 집합체 (triple helix)여야 하며, R&D 프로젝트 수행 및 통제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졌다.

470개 기업 중에 90%는 중소기업이고, 14개가 외국계 기업(클라란스, 꼬딜, 디올, 겔랑, 헤르메스, 파코라반, SCA Packaging, 샤넬, 알반 뮐러 등 유명 프랑스 국내 기업 포함)이다.

5개 대학, 136개 연수기관, 188개 연구소(7,120여명의 연구원)에 고용창출 효과는 45,000 여명에 이른다.

샤르트르 지역 외에도 프랑스 중남부, 그리고 북부에 이르는 넓은 관련 기관 및 기업과 대학들

과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방대한 지역과 연계 되어 있다. 또 하나의 “향장품 지구” 와 같은 개념으로 지속적인 R&D 활동, 신진 연구자의 트레이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품개발, 패키징 및 디자인 업체들에 이르기까지 대외적으로 인용되고 벤치마킹 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DNA 들의 종합적인 단체라고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요 대표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 및 기본적인 기조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다.

2) Pole-PASS (프랑스)

프랑스 동남부 지역의 그라세에 위치한 향수, 향료, 화장품 및 감미료 분야에 특화된 클러스터인 PASS는 지리적으로 향수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이 자연스럽게 향수, 향료, 식품, 화학, 화장품 분야에 응용되어 아로마 식물 재배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논스톱 생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코스메틱밸리와 함께 화장품 관련 클러스터로 공식 선정되었다. 향수, 향료 및 화장품 관련 원료, 소재와 생산기술에 관련된 기기분야에 특화된 클러스터이다. 96개 기업에 5,9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6개 R&D 프로젝트, 49백만 유로 투자, 9개 대학(인력양성, 관련 코스), 300명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각 클러스터는 법적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클러스터의 전략, 관련 프로젝트 수행 효율성 재고, 국내·외 타 클러스터와의 업무 추진 결과와 제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관장하며 프랑스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가 연관되어 있다.

4. 제주 코스메틱밸리 중점 추진 사업

제주 코스메틱 밸리 5대 중점추진 사업으로 코스메틱밸리조성, ISO-GMP 구축, 기술지원센터 운영, 화장품마을 조성, 친환경 원료단지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코스메틱밸리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전후방 시설을 확충하고, ISO-GMP 구축에는 코스메틱단지 내에 국제 수준의 ISO-GMP 공장을 구축하여 화장품 거점을 마련한다.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화장품 관련 기술지원, 디자인 지원, 신원료 확보, 브랜드 확장 지원 등을 통한 기업생산 및 경쟁력 확보한다. 화장품마을조성사업으로서 4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원료 확보 및 1차·3차 산업 연계하고, 친환경 원료 단지는 화장품마을과 연계하여 제주산 허브자원 및 향료자원 등을 재배하여 코스메틱밸리 내 기업에 원료제공 및 글로벌 진출 도모한다.

클러스터내 화장품기술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향장품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향장품 관련 기업지원기관을 설립과 더불어, 관련 연구개발형 기업,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시설과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토 원료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주의 현무암을 기초로 한 제주 고유 식물종은 약 60여종으로서 그 특성과 향토성이 높이 평가되어 향장품 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화장품마을은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 유수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박물관 등을 유치하고 한류를 겨냥한 화장품 광고 변천사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의 화장품 모델,근대 한국의 화장품 역사 박물관을 기획할 수 있으며, 유명 향수들의 콘셉트와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 등은 화장품 마을이 공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의 천연자원을 파크의 기반인 정원으로 꾸며 이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과 이를 활용한 제품은 테마 파크의 기본 콘텐츠가 될 것이다.

5. 나오며

우리나라 화장품 총 수출액은 2009년 기준 4억 2,320만 달러, 총수입액 8억 3,394만 달러로 4억 1,074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가운데, 대 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 중 대 중국 수출은 1억 1,917만 달러로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28.2%), 2005-2009년 연평균증가율은 15.3%를 기록했다. 수입은 1,471만 달러(대 중국 무역수지는 1억 446만 달러)흑자로 국가별 수입 순위 9위를 차지하였고(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1.8%), 2005-2009년 연평균증가율은 15.8%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액이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3%에 불과하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1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제조업의 비중은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때 향장품산업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은 이미지 추구와 브랜드 가치에 따라 가치가 극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화장품산업이 발전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장품은 스킨(70-80%), 로션(40-60%), 화장수 등 물 비중이 비교적 높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품목으로 적합하므로 제주의 물과 천연식물 및 약용식물을 가미하여 고기능성 제품 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선도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웰니스(wellness) 관광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활용한 건강·미용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화장품산업은 에너지 소비가 낮고, 환경오염 배출이 거의 없으며, 자연산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녹색산업이므로 '친환경 녹색성장' 을 주도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산업연관표(2005)에 따르면 생산액당 최종에너지 소비액이 화장품은 1.82로, 광학기기 1.95, 의약품 1.89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유기농 화장품 개발 육성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유기농화장품 육성지역으로는 응답자의 79%가 제주도를 추천하고 있으며,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이었고, 코스메틱밸리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향후 한·미, 한·EU FTA로 인한 화장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국내 화장품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위기를 화장품 R&D 사업의 규모 및 지원 확대, 신소재 개발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과 감귤위주의 1·3차산업 편중현상이 심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제주지역내 총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1인당 GRDP가 전국평균(100%)에 비해 73%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산업구조가 가장 큰 원인에 기인하므로, 제주 코스메틱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향장뷰티산업을 육성할 경우,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지역 총생산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